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2018년 1월 4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 3.(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1. 3.(수)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담당과장	김재준 과장 (044-203-4080)	담 당 자	송상현 사무관 (044-203-4086)

2017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18. 1. 3(수) 배포 -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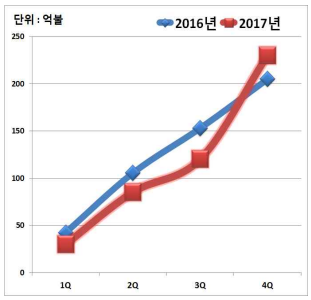
○ 본 동향 자료는 산업부의 외국인투자통계 및 통상정보학회의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 연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를 분석한 자료임

○ 신고금액 및 도착금액은 **12월 31일까지의 실적 잠정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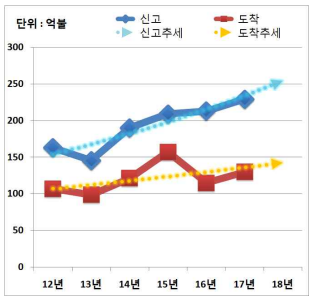
○ 산업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매분기마다 발표**되며, **'18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18년 4월 중순경 발표예정**

< 2017년 외국인직접투자의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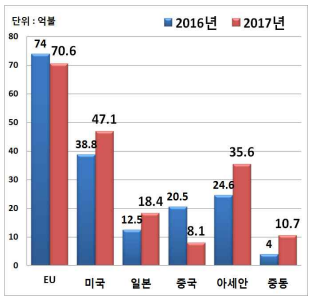
[1] 229.4억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 달성과 4분기 분기기준으로도 사상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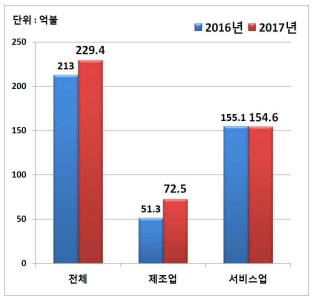
[2] "3년연속 200억 달러"를 기록해 외국인 투자 장기 상승추세 유지



[3] 전통투자국(마일)의 견조한 투자증가세와 중동·아세안 등 투자유치국 다변화



[4] 산업구조 고도화 및 4차산업혁명 기반을 조성하는 제조업 투자 큰 폭 증가



2017년 외국인직접투자 229.4억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 기록!

- 신고기준 229.4억 달러로 (+7.7%) 3분기 감소세를 반등 -
- 도착기준도 128.2억 달러로 (+20.9%) 내실있는 성장세 -

Ⅰ. 종합

1 **(실적)** 신고는 전년대비 **7.7% 증가**한 **229.4억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고, 외국인투자 **"3년 연속 200억 달러"를** 달성하며 **상승추세 유지**

○ 도착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대비 20.9%** 증가한 **128.2억 달러**를 기록해 외국투자가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

2 **(추이)** 1~3분기까지 135.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7% 감소했으나, **4분기에 분기기준 사상최대 실적**인 **93.6억 달러** 달성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

[분기별 동향 (신고, 억 달러, 전년동기비, %)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2016년	42.4	+19.3	63.1	+18.8	44.9	+2.1	62.5	△18.2	213.0	+1.9
2017년	38.5	△9.2	57.4	△9.1	39.9	△11.2	93.6	+49.8	229.4	+7.7

○ 특히, **4분기 증가**는 화공, 전기·전자 중심 **제조업**(+278.7%) 투자* 증가와 **유럽연합(EU)·중동·아세안** 지역의 강세에 기인

* 4분기 **인수합병(M&A)형 제조업투자**가 급증 (2.0 → 26.6억 달러, +1,246%, 전년동기비)

3 **(평가)** 북핵 등 어려운 여건 속에도 ①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한국이 안정적인 투자처임을 **평가**받았으며,

* 한국 신용등급 S&P AA (8월), 무디스 Aa2 (10월), 피치 AA- (10월)로 각각 유지

○ 또한, ② **국내 대기업과**의 협력수요 증대, ③ **"4차산업혁명"** 관련 투자 확산, ④ **부동산·도소매** 등 **일부 서비스업** 투자증가, ⑤ 고위급(장·차관) 투자유치설명회(IR) 등 적극적 투자유치 노력이 **역대 최대실적 달성의 주요 요인임**

Ⅱ. 세부동향

1. 국가별 특징 (연간누적, 신고기준, 전년대비)

❶ EU는 제조업 중심으로 증가해 역대최대치인 지난해 수준을 유지(△4.5%)
❷ 미국은 금리인상 · 법인세인하에도 불구 견조한 증가세(+21.5%)를 보임
❸ 일본은 경기회복세에 따른 해외투자 증가로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48.5%)
❹ 중국은 당국의 해외직접투자 관리 · 감독 강화 정책기조의 영향으로 감소(△60.5%)

1 유럽연합(EU)

◈ 신고기준은 전년대비 4.5% 감소한 70.6억 달러를 기록, '16년 사상최대 실적(74억 달러) 수준을 유지, 도착기준은 64.9% 증가한 63.5억 달러를 기록

○ **(추이)** 1~3분기 누적기준 큰 감소세(△40.7%)를 보였으나, **4분기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해, 연간기준 **감소세에서 보합세로 전환**

[EU 분기별 동향 (신고, 억 달러, 전년동기비, %)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2016년	17.6	+405.8	24.5	+154.4	11.1	+124.7	20.8	+200.8	74.0	+196.5
2017년	8.8	△50.3	13.4	△45.3	9.3	△16.0	39.2	+88.6	70.6	△4.5

○ **(업종별)** 제조업은 38.6억 달러(+183.9%), 서비스업은 31.3억 달러(△45.4%)를 기록

- **(제조업) 화공**(19.8억 달러, +219.1%), **전기·전자**(9.3억 달러, +424.5%), **운송용기계**(3.1억 달러, +478%) 중심 큰 증가세를 보이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
- **(서비스업) 도·소매**(9.8억 달러, +197.9%) 분야가 호조세를 보였으나, **금융·보험**(7.2억 달러, △79.6%), **부동산·임대**(3.1억 달러, △41.3%)의 감소 영향이 큼

○ **주요특징**

- **(실적의미)** 브렉시트 협상의 불확실성, 유럽 중앙은행 양적완화 축소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70억 달러"** 달성
- **(4Q 반등이유)** 3분기 감소세 전환을 위해 **고위급 투자유치설명회(IR)** (장관, 영·프, 11월)을 통해 한국경제의 객관적인 상황과 매력도를 설명한 효과에 기인

* 장관 주재 유럽 투자설명회(IR:영·프시 5억 달러 투자신고로 "3년연속 200억 달러"도 최단기간 달성(11.29)

※ 유럽연합(EU)발 외국인투자(FDI) 주요사례

▲ **(헬스케어)**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사업재편과 한국 바이오·헬스케어 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한 글로벌 기업 A사의 투자
▲ **(자율주행차)** 미래형 자동차(자율차) 센서 및 부품을 개발하기 위한 프랑스 기업 B사의 지분투자로 한국기업 및 연구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상용화 연구도 진행 중

2 미국

◈ 신고기준 21.5% 증가한 47.1억 달러, 도착기준 29.0% 감소한 9.5억 달러

○ **(추이)** 1~3분기 등락을 거듭하며 전년수준을 유지했으나, 4분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하여 **연간기준으로 증가세 전환**

[미국 분기별 동향 (신고, 억 달러, 전년동기비, %)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2016년	5.5	△56.2	12.6	+49.0	12.6	+43.8	8.0	△67.9	38.8	△29.3
2017년	3.7	△33.5	20.8	+64.7	4.6	△63.6	18.1	+124.8	47.1	+21.5

○ **(업종별)** 제조업은 전년대비 **44.4% 증가한 13.2억 달러**를 기록, 서비스업은 **14.5%** 증가한 **33.9억 달러**를 기록

- **(제조업) 화공**(3.3억 달러, +67.9%), **자동차**(5.5억 달러, +6.5%), **전기·전자**(2.2억 달러, +1,676%) 중심으로 증가; **기계·장비**(0.15억 달러, △46.0%), **식품**(0.1억 달러, △63.0%) 분야는 감소

- **(서비스업) 부동산**(13.4억 달러, +124.0%), **음식·숙박**(7.1억 달러, +5,713%)이 호조세를 보이고, **도·소매**(3.3억 달러, △33.6%), **금융·보험**(2.1억 달러, △7.2%)분야는 감소세

○ **주요특징**

- **(증가이유)** 기술력이 있는 한국기업에 지분투자를 통한 **제3국 진출**, 국제 **가치사슬 편입** 등 **합작투자의 증가**가 **우려 요인***을 **상쇄**

  * 3차례의 기준금리 인상(3·6·12월), 자국기업 유인을 위한 세제개편안 통과(12월) 등

- **(기여효과)**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IoT), 바이오시밀러, 콜드체인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고용창출**에 기여

※ 미국발 외국인직접투자(FDI) 주요사례

▲ **(클라우드)** 미국의 세계적인 IT기업 A사가 한국의 우수한 IT인프라 및 인력을 활용하여 국내외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본격진출을 위한 증액투자

▲ **(광섬유케이블)** 4차산업혁명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광섬유케이블을 제조하는 미국 U사의 신규투자

3 일본

◈ 신고기준 47.9% 증가한 18.4억 달러, 도착기준 52.0% 증가한 12.3억 달러

○ **(추이)** 3분기까지 견고한 성장세(+90.2%), 4분기에 증가세가 다소 둔화

[일본 분기별 동향 (신고, 억 달러, 전년동기비, %)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2016년	1.6	△44.3	5.3	△22.3	1.9	△12.6	3.6	△23.5	12.5	△25.2
2017년	4.1	+153	4.1	△22.5	8.7	+347	1.6	△56.5	18.4	+47.9

○ **(업종별)** 제조업은 전년대비 **45.7% 증가한** 9.**7억 달러**를 기록, 서비스업은 전년대비 **58.8% 증가**한 **8.7억 달러**를 기록

- **(제조업) 금속**(3.2억 달러, +7,463%), **전기·전자**(2.4억 달러, +80.7%)가 증가, **화공**(2.6억 달러, △3.1%)은 보합세, **기계·장비**(0.3억 달러, △62.1%)는 감소세

- **(서비스업) 부동산**(3.0억 달러, +619.3%), **비즈니스 서비스**(1.8억 달러, +83.0%)가 호조세를 보였으며, **도·소매**(1.6억 달러, △30.7%)는 감소세

○ **주요특징**

- **(실적의미)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어 **본격상승세***를 **시현**

  * 일본 오국인직접투자(FDI)(신고, 억 달러) : ('13) 26.9 → ('14) 24.9 → ('15) 16.6 → ('16) 12.5 → ('17) **18.4**

- **(증가이유) 견조한 일본의 경제성장률**과 인수합병(**M&A**) **확대 추세**가 일본의 대(對) 세계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며, **대한(對韓) 투자 증가세에도 영향**

  * 일본의 1~9월 해외직접투자(OFDI) : 14조 4338억 엔 (+7.1%) (日 재무성, 전년동기비)

- **(투자다변화) 화공, 전기·전자, 금속** 등 전통적 **강세분야** 외에 콘텐츠(게임), 정보기술(IT) 플랫폼(IoT·소프트웨어) 등 **디지털경제 관련 투자가 본격화**

※ 일본발 외국인직접투자(FDI) 주요사례

▲ **(고강도 알루미늄)** 일본 철강기업 K사가 한국소재 철강소재기업의 지분을 인수하여 새로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고강도 알루미늄을 생산하기 위한 투자

▲ **(2차전지 분리막)** 2차전지 소재(분리막)을 생산하는 D사는 한국 완제품생산 기업과의 밸류체인을 구축해 급증하는 세계적 2차전지 수요에 선제적 대응

4 중국

◈ 신고기준 60.5% 감소한 8.1억 달러, 도착기준 58.7% 감소한 2.0억 달러

○ **(추이) 연중 감소세**를 보였으나, 4분기 **감소세**(△48.0%)는 **다소 완화**

[중국 분기별 동향 (신고, 억 달러, 전년동기비, %)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2016년	3.8	+603	3.3	△2.6	9.6	△15.9	3.9	△13.8	20.5	+3.6
2017년	1.6	△56.4	3.2	△5.1	1.3	△86.4	2.0	△48.0	8.1	△60.5

- 다만, **한·중 정상회담 계기**('17.12월) 협력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최근 **투자수요 문의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감안, 향후 **회복세를 기대**

* 2차례 중국계 전문가 간담회('17.12월)에서 **한국투자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많고, **4차산업혁명·신재생에너지·인프라** 분야 등이 유망 유치분야로 언급됨

○ **(업종별)** 제조업은 전년대비 **73.3% 감소한 2.3억 달러**, 서비스업은 전년대비 **45.8% 감소한 5.5억 달러**를 기록

- **(제조업) 화공**(1.4억 달러, +16.5%)은 증가세, **전기·전자**(0.4억 달러, △49.7%), **기계·장비**(7백만 달러, △96.2%), **금속**(3백만 달러, △97.7%)은 감소세

- **(서비스업) 도·소매**(1.2억 달러, +23.1%), **문화·오락**(1.2억 달러, +10.1%)는 증가, **부동산**(0.4억 달러, △65.0%), **음식·숙박**(0.2억 달러, △84.0%)은 감소세

○ **주요 감소원인**

- '16년 이후 강화된 **외환송금 규제,** 해외투자 분야를 제한하는 **"해외직접투자 지도 지침"***('17.8월) 실시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

* 해외투자대상을 장려, 제한, 금지로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명문화**, 조세·외환·보험 등 관련제도 정비와 **"해외투자블랙리스트"** 작성 (중국 국무원)

- **'17. 12월**에도 **"민간기업경외투자 행위규범"**(중국 발개위)을 새로이 제정해 과도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및 자본유출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 중**

* 중국의 1~10월 해외직접투자(OFDI) : 863억달러 (△40.9%) (중국 상무부, 전년동기비)

※ 중국발 외국인직접투자(FDI) 주요사례

▲ **(고급 화장품)** 한국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중국 시장 점유율 확대와 아시아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 N사의 대규모 증액투자

▲ **(면역항암제 지분투자)** 기술상용화를 목표로 한국의 면역항암제 분야 강소벤처기업에 대한 중국 제약사 Z사의 신규투자

2. 업종별 특징 (연간누적, 신고기준, 전년대비)

❶ 제조업 투자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 증가(화공, 전기·전자), 신소재(금속), 바이오(의약) 분야 중심으로 고른 증가세를 시현

❷ 서비스업 투자는 내수소비 회복세를 기대한 도·소매(유통), 4차산업혁명 대응 IoT·스타트업·핀테크 등 사업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분야 중심으로 증가세

1 제조업

◈ 신고기준 41.2% 증가한 72.5억 달러, 도착기준 91.5% 증가한 52.2억 달러

○ **(업종별)** 석유제품 가격경쟁력 회복(유가상승)에 따른 **설비투자 증대**(화공·금속)와, **디스플레이(OLED)·2차전지** 관련 투자증대가 증가세 견인

- **(증가업종) 화공**(14.6 → 29.2억 달러, +101.0%), **전기·전자**(10.7 → 15.3억 달러, +42.9%), **금속**(2.1 → 5.3억 달러, +149.5%), **의약**(2.6 → 3.5억 달러, +32.9%)

- **(감소업종) 비금속**(1.8 → 1.0억 달러, △44.0%), **운송용기계**(9.2 → 9.0억 달러, △1.4%)

○ **주요특징**

- **(실적의미)** 제조업 투자는 '14년 76.5억 달러 이후 **3년 만에 70억 달러를 달성**

* 제조업 FDI (신고, 억 달러) : ('14) 76.5 → ('15) 45.6 → ('16) 51.3 → ('17) **72.5**

- **(최근트렌드)** 업종간 융합과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신성장산업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는 **4차산업혁명 관련 투자***가 본격화

* 자동차부품(자율차센서), 드론, 신소재, 2차전지 소재(양극재, 분리막), 로봇

※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FDI) 주요사례

▲ **(2차전지 소재)** 국내 2차전지 완제품 생산기업과 2차전지 소재생산 외투기업(양극재, 분리막 등)이 결합하여 글로벌 밸류체인을 구축하기 위한 증액투자

▲ **(드론)** 한국 드론시장 진출과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드론 및 항공기용 부품 분야 강소기업인 폴란드 U사의 신규투자

▲ **(자율차센서)** 센서분야 세계1위 업체인 스위스 S사의 한국 강소기업에 대한 신규투자로, 기술협력 및 자율차 센서 연구를 통해 시장점유율 확대가 목표

▲ **(고급화장품)** 영국 U사의 색조화장품 분야 경쟁력을 지닌 한국기업에 대한 지분인수 투자로 향후 중국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2 서비스업

◈ 신고기준 0.3% 감소한 154.6억 달러, 도착기준 2.8% 감소한 75.2억 달러

○ **(업종별)** 국내 내수시장 회복세에 따른 **도·소매(유통)** 투자 증가와, 정보기술(IT) 서비스, 게임, 콘텐츠 등 **디지털 경제시대의 신산업분야** 투자도 증대

- **(증가업종) 도소매**(14.9 → 20.4억 달러, +36.2%), **비즈니스서비스**(37.1 → 39.3억 달러, +5.9%), **부동산·임대**(23.9 → 45.0억 달러, +88.0%)

- **(감소업종) 금융·보험**(62.2 →26.9억 달러, △56.7%), **운수·창고**물류(4.0 →3.5억 달러, △12.0%)

○ **주요특징**

- **(실적의미)** 서비스업 투자는 '16년 사상 최대치에 이어, 150억 달러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여 **장기적인 상승추세**를 이어나감

*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억 달러) : ('14) 111.9 →('15) 147.3 →('16) 155.1 →('17) **154.6**

- **(최근트렌드)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을 활용해 기술력을 지닌 유망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투자가 확산 중

* 모바일결제(핀테크+빅데이터), 스타트업 공간공유 플랫폼,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등

- **(합작투자) 빅데이터, 핀테크, 모바일플랫폼** 등 외국의 선도기술과 **한국의 정보기술(IT) 인프라·우수한 인력**이 **결합**되어 시장테스트를 위한 투자가 활발함

※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FDI) 주요사례

▲ **(핀테크·지급결제)** 모바일 결제시장 급성장에 따라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와 해외시장에서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국의 글로벌 IT기업 A사의 신규투자

▲ **(모빌리티)** 빅데이터+IT플랫폼+GPS 등 첨단기술이 결합되어 내비게이션, 대리운전, 콜택시, 스마트홈 등의 연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국 K사의 신규투자

▲ **(소비재유통)** 가격대비 성능을 고려하는 합리적 소비자의 성향을 타겟팅하여 실내 인테리어제품 및 가구 유통을 위한 스웨덴 글로벌 기업 I사의 증액투자

▲ **(스타트업)**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인정한 외국의 스타트업 육성기업이 한국에 진출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영국 및 미국 기업의 신규투자

3. 유형별 특징 (연간누적, 신고기준, 전년대비)

❶ 그린필드형 투자는 4년 연속 증가*하여, 신고기준으로 4.5% 증가한 157.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 기록, 도착기준은 12.0% 감소한 63.7억 달러

* 그린필드 (억 달러) : ('13) 95.7 → ('14) 110.2 → ('15) 141.1 → ('16) 150.3 → ('17) **157.0**

❷ 인수합병(M&A)형 투자는 합작투자 증가로 신고기준 15.4% 증가한 72.4억 달러, 도착기준은 91.4% 증가한 64.5억 달러

1 그린필드형 투자

○ **(업종별) 제조업은 감소**(△11.5%), **서비스업은 증가**(+15.6%)

* ① 그린필드형·제조 : 34.7억 달러(△11.5%), ② 그린필드형·서비스 : 121.4억 달러(+15.6%)

○ **(주요특징) 4차산업혁명 관련 선도기술**(IoT, 로봇, 핀테크 등)분야 투자증대, **주력산업 투자지속** 및 **신성장산업 분야 투자확대**로 고용창출에 기여

※ 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FDI) 주요사례

▲ **(4차산업+밸류체인)** 2차 전지 소재(분리막)를 생산하는 일본 D사는 한국 완제품생산 기업과의 가치사슬을 구축해 세계적 2차 전지 수요급증에 선제적 대응

▲ **(자동차용 부품공장 건설)** 자동차 차체용 부품제조를 위한 미국 C사의 증액투자로 충남 당진에 공장을 건설하여 신제품 생산

2 인수합병(M&A)형 투자

○ **(업종별)** 인수합병(M&A)형 **제조업은 증가**(+212.2%), **서비스업은 감소**(△33.7%)

* ① 인수합병(M&A)형·제조: 37.7억 달러(+212.2%), ② 인수합병(M&A)형·서비스 : 33.2억 달러(△33.7%)

○ **주요특징**

- **(최근트렌드)** 한국기업과의 합작*(지분투자)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한 투자 등 **제조업 중심**으로 증가

* **화공·전기전자·기계장비** 등 경쟁력을 지닌 제조업분야에 합작투자가 최근 증가

- **(증가요인)** 4분기 한국경제의 불확실성 해소와 **긍정적 외부평가**에 따라 5천만 달러 **이상 대형 인수합병(M&A)딜 성사**를 통해 자금이 유입된 점이 급증요인

* 5천만 달러 이상 대형M&A : ('16년) 24건, 51.4억 달러 →('17년) 30건(+25%), 58.6억 달러(+14.0%)

※ 인수합병(M&A)형 외국인직접투자(FDI) 주요사례

▲ **(한국+일본 합작투자)** 일본 철강기업인 K사가 한국소재 철강기업의 지분을 인수하여 새로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고강도 알루미늄을 생산하기 위한 투자

▲ **(사업효율화 인수)** 사업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효율화와 IoT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프린팅분야 진출을 위한 미국 H사의 국내 S기업 인수 투자

Ⅲ. 2018년도 전망 및 향후계획

1. 2018년 전망

□ **(국제 외국인직접투자(FDI) 전망)**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2018년 국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7년의 회복세에 이어 **1.85조 달러**로 완만한 증가(moderate rise)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우리 외국인직접투자(FDI) 전망)** 그 간의 외국인직접투자(FDI)흐름과 유치 가능 사업 (정부, 인베스트코리아(IK), 지자체 등) 등을 종합 고려 시 외국인투자 **상승기조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

○ 다만, '17년 3차례 미국 금리인상과 세제개편(법인세 인하)의 영향 본격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잠재적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음

- '18년 이후 선진국 중앙은행(美 연준, ECB)의 **양적완화 축소 본격화, 브렉시트 협상 불투명, 중국 해외직접투자 규제강화** 등의 **요인도 상존**

2. 향후 계획

□ 정부는 사상최대 실적달성의 **상승 국면전환을 2018년에도 지속**시키고 외국인 투자가 국내 **"혁신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술력 있는 **외국기업의 적극 유치에 중점**을 둘 계획임

○ 이를 위해, ▲ 4차산업혁명 대비 투자자 타겟팅 및 소싱 강화, ▲ 성과중심의 투자유치활동 전개, ▲ 지속가능한 외투기업 인프라 구축 등의 노력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

□ 또한, 정부는 지정학적 위험 관련 외국기업 및 투자가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국내·외 소통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송상현 사무관(☎ 044-203-40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